24일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마지막 라운드 이정은이 2번홀 버디를 올리고 밝게 웃고 있다. (사진 왼쪽)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1R에서 고진영이 12번홀에서 아이언티샷을 날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

KLPGA 이정은, 5승 사냥 나선다

투어 역대 4번째 총상금 10억원 돌파 눈앞… 29일 '팬텀 클래식'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PGA) 투어 역대 4번째 총상금 1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둔 이정은(21 · 토니모리)이 시즌 5승에 도전한다.

이정은은 2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 88CC 나라-사랑 코스(파72 · 6554야드)에서 열리는 '팬텀 클래식 위드 YTN(총상금 6억원 · 우승상금 1억2000만원)'이 출전한다.

지난주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가장 먼저 4승을 달성한 이정은은 2주 연속 우승과 함께 각종 타이틀 굳히기에 나선다.

이정은은 18홀 최소타 신기록(12언더파 60타)에 이어 36홀 최소타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다승(4승)과 상금 선두(9억9518만원)는 물론 대상 포인트(565점)와 평균 타수(69.58타) 등 4개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은 KLPGA 투어 역대 4번째로 시즌 상금 1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상금 10억원을 넘어선 선수는 2014년 김효주(22 · 롯데 · 12억897만원)와 지난해 박성현(24 · KEB하나은행 · 13억3309만원), 고진영(23 · 하이트진로 · 10억2244만원) 등 3명 뿐이다.

특히 이정은은 상금과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 2위와 격차가 제법난다.

이번 시즌 4개 대회만을 남겨놓고 있어 우승을 추가한다면 타이틀 싹쓸이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경쟁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즌 초반 3승을 몰아친 뒤 한 동안 주춤했던 김지현(26 · 한화)은 다승왕 탈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주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3위에 오르며 지난 6월 '초정탄산수 · 용평리조트 오픈' 준우승에 이어 9개 대회 만에 '톱10'에 진입에 성공했다.

후반기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하며 상금왕 경쟁에 불을 지핀 고진영(23)과 오지현(21 · KB금융그룹)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고진영은 6월 이후 10개 대회에서 '한국여자오픈' 기권과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12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8개 대회에서 우승 2회 포함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 69.65타로 이정은을 0.07타 차로 쫓고 있어 순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정은은 디펜딩 챔피언 홍진주(34 · 대방건설), 3승의 김지현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고진영은 상금 랭킹 4위 오지현, 6위인 김지현(26 · 롯데)과 함께 첫 날 경기를 치른다.

/김민근기자

류현진, 쿠어스필드 최종오디션 기회 얻을까

PS 선발 여부 결정 앞두고 주말 콜로라도전 마지막 등판 가능성

큰 부상을 피한 류현진(30 · LA 다저스)에게 포스트시즌 선발 진입을 위한 마지막 오디션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까.

MLB닷컴 다저스 담당 켄 거닉 기자는 26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류현진이 캐치볼을 했다. 팔뚝 부기가 가라앉아 이번 주말 콜로라도전 등판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3회 조 패닉의 강습타구에 왼팔뚝을 맞고 조기 강판됐다.

당시 활약여부에 따라 포스트시즌 선발진입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기량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공을 던지는 왼팔에 강한 타구를 맞아 큰 부상이 우려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뼈에는 이상이 없는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팔뚝이 많이 부었던 류현진은 불과 이틀 만에 캐치볼을 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일부터 10월2일까지 콜로라도 로키스와 쿠어스필드 원정 3연전을 치르는 팀의 정규시즌 마지막 일정에 류현진이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류현진이 몸 상태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선발 등판 준비를 한다면 30일 등판이 유력하다.

지난 등판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류현진에게 포스트시즌 선발 낙점을 위한 최종 오디션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셈이다.

현재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포스트시즌 선발진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부동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비롯해 다르빗슈 유와 알렉스 우드 등 3명은 유력하다.

마에다 겐타는 불펜행이 기정사실화됐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류현진과 리치 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류현진은 올해 5승8패 평균자책점 3.47을 기록 중이다.

후반기 10경기에서 승운이 따르지 않아 2승2패에 머물고 있지만 평균자책점 2.24로 팀내 선발진 중 가장 돋보인다.

큰 경기 강한 모습을 보여온터라 로버츠 감독은 끝까지 류현진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쿠어스필드에서는 통산 3경기에 등판해 1승2패 평균자책점 5.52로 썩 좋지 않았다.

과연 류현진이 투수들의 무덤을 빠져나와 포스트시즌에서 선발로 활약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근기자

K리그 대구FC, '전북현대 전 골 취소' 연맹에 소명 요청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대구FC가 '비디오판독(VAR) 판정 논란' 속에서 2골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공식 소명을 요청했다.

대구는 26일 "심판 판정을 존중하고 VAR의 도입 취지도 이해한다. 그러나 VAR이 근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지난 24일 경기의 판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골이 취소된 것에 대구의 입장이다.

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주니오가 가슴 트래핑 후 오른발 슛으로 골을 넣었지만 주심과 비디오 판독 심판은 영상을 수차례 돌려본 끝에 경합 과정에서 주니오가 신형민을 밀었다고 판단, 노골을 선언했다.

1-1로 맞선 후반 40분에도 VAR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대구의 골이 도마위에 올랐다. 에반도르가 세징야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깔끔한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주심은 다시 한 번 비디오를 보기 위해 하프라인 근처로 향했고 득점 취소를 알렸다.

연맹 관계자는 'VAR 확인 결과 대구 골키퍼 조현우가 골킥을 할 때 공을 멈추지 않고 찼다. 이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인데 규정상 심판의 결정이 옳았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후반 39분 나온 발생한 조현우 선수의 골킥 상황이 명백한 'restart(경기 재개)' 상황으로 국제축구평의회(IFAB) 'VARS EXPERIMENT PRACTICALITIES' 4항에 의거, VAR 리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8조 'The Start and Restart of Play'에 의하면 골킥은 프리킥, 페널티킥, 스로인, 코너킥과 함께 restart(경기 재개) 상황에 해당한다. K리그도 해당 경기규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대구는 "모든 구단이 승점 1점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쏟아낸다. 구단의 책무이자 팬들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프로축구연맹도 땀이 왜곡되는 것을 바라진 않을 것이다. 대구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연맹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CGV '추석 탈출 프로젝트'… 심야 할인~휴가비까지 지급

CGV가 황금연휴로 이어진 추석을 보다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추석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증후군을 걱정하는 고객들을 위해 '명절 증후군 처방전'을 준비했다.

오는 29일까지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일반 2D 영화 7000원 관람권 2매와 매점 콤보 2000원 할인권 1매를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다.

황금 연휴 기간인 10월 9일까지 CGV를 방문하면 '탈출! 움직이면 쏜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휴가비 지원, 용돈 지급, 심야 할인 세 가지 콘셉트로 혜택을 제공한다.

휴가비 지원의 경우 이벤트 기간 내 영화 관람 인원에 따라 각 1팀씩 추첨을 통해 여행 상품권과 CJ ONE 포인트를 증정한다.

1인 관람 시 여행 상품권 30만원권과 CJ ONE 포인트 30만점을, 2인 관람 시 여행 상품권 70만원권과 CJ ONE 포인트 70만점을, 3인 이상 관람 시에는 여행상품권 1백만원권과 CJ ONE 포인트 1백만점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

용돈 지급은 이벤트 참여 고객 대상 중 추첨을 통해 총 999명에게 CJ ONE 포인트를 5000점(199명), 3000점(300명), 1000점(500명)씩 증정한다.

또 심야 관람고객을 위해 이벤트 기간 내 밤 11시 이후 일반 2D 영화를 관람 시에는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이며,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당첨자 발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석 연휴 간 사용할 수 있는 '보름달 패키지'도 판매한다.

패키지는 '추석실속팩'과 '추석패밀리팩' 2종으로 각각 6만 세트, 2만 세트를 온라인 선착순이다.

/뉴시스